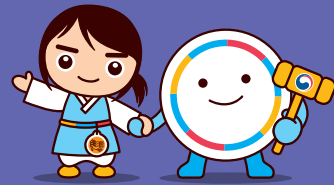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ACRC홈페이지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곁에서 소중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더 나은 청렴 국가를 실현해 나갑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03-08

ISSN 2005-8535

SPRING

ACRC NEWSLETTER 2022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vol.72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국민의 곁에서 듣고,
국민 곁에서 걸겠습니다.



지난 2021년 <겨울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이동현[서울특별시 노원구]

권익비전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시행 100일의 성과와 주요 적극행정 사례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일상생활에서도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들이 많은데,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를 통해 앞으로 더 많은 권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나[경상북도 포항시]

청백이와 권익이 납세자에게 부과된 과세정보를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결정한 행정심판 사례 웹툰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럴 때 행정심판을 찾으면 된다는 걸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이지영[서울특별시 중랑구]

ACRC News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어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소송 절차 소요비용이 지원되고 보상금 신청기간도 확대된다는 소식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앞으로 공익신고에 따르는 불안감이 훨씬 해소될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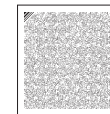
이 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5가지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제한·금지행위를 포함한 10가지의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무엇일까요?

퀴즈 정답자	권민정[경상북도 고령군]	윤영성[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난호 정답 :	김태일[서울특별시 은평구]	이재섭[서울특별시 중랑구]
12월 9일	서문석[대전광역시 서구]	홍태욱[경상남도 양산시]
	안종성[전라남도 화순군]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두 열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ACRC NEWSLETTER

VOL.72



국민을 위한

- | | | |
|----|------------------|------------------------|
| 04 | 권익 포커스 ① |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
| 06 | 권익 포커스 ② | 2022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 08 | 국민 결 국민권익 | 국민권익 고충민원 서비스 |
| 14 | 권익 미리보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 18 | 권익 빅데이터 | 2022년 1분기 민원 동향 |
| 24 | ACRC 뉴스 | 분기별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이슈 |

국민이 만드는

- | | | |
|----|-------------------|------------------------|
| 27 | 권익 새로고침 | 주요 고충민원 해결사례 |
| 32 | 권익을 빛는 사람들 |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준비TF |
| 36 | 국민생각함 |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
| 38 | 권익 TOON | 저희 아버지, 제가 부양했습니다! |
| 40 | 청렴 콘텐츠 |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

국민과 함께 읽는

- | | | |
|----|---------------|-------------------------|
| 44 | 권익 나들이 | 걷다 보니 여행이었다 |
| 50 | 권익 비전 | 지구 최강 정책을 소개합니다 |
| 52 | 권익 스크린 | 부정부패를 막는 한 발, 청렴을 향해 쏘라 |
| 54 | 트렌드 이슈 | 아직 메타버스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
| 56 | 생활 더하기 | 흐릿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
| 58 | 권익 갈무리 | 다시 읽는 국민권익 |

발행일 2022년 4월 29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전현희 **편집인** 허재우 **정부간행물 발간번호** 11-1140100-000203-08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naver.com/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웨스트코[*]



▶ 랜선)으로 다시 보는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

지난 2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및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한 이들이 한데 모여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가졌다. 기념식은 공식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으로도 동시 중계되어 많은 이가 함께할 수 있었다. 청렴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그 날을 다시 만나본다.



▶ **국민이 함께 만든 자리, 국민권익의 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날짜의 유래는 조선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402년 2월 27일, 3대 왕 태종이 나라에 '신문고'를 설치하도록 교서를 내렸다. 백성이 억울한 사연을 마음껏 호소할 수 있었던 신문고는 백성과 나라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이어받아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국민권익의 날을 지정해 10회째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유튜브 생중계를 병행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뜻깊은 자리를 나눴다.

▶ '청렴'을 빛낸 얼굴들

제10회 국민권익의 날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9개 기관, 11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1점, 위원장 표창 79점을 수여했다. 포상은 부패방지, 민원·옴부즈만, 권익개선, 행정심판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분야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전국 교육기관 최초로 '공직자 재산심사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 충청북도교육청 고현주 지방교육행정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한센인 관련 고충민원 해결에 이바지한 한국한센복지협회 김인권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윤효경 본부장이 서울시와 대한항공 간 송현동 부지 갈등 조정에 내가 운영 중인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한 '매입 후 교환방식'을 제시해 조속한 민원 조정을 견인하여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별도로 채용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대신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발급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윤희 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부산광역시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부산광역시는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는 시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구제 등에 기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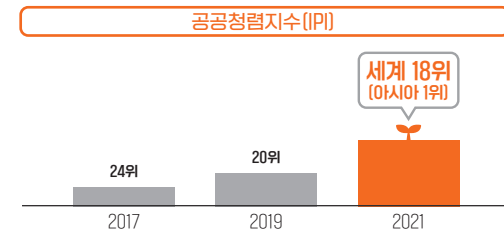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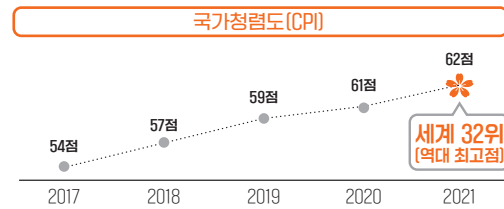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책임지는 정부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노력은 올해도 계속된다. 반부패·공정 개혁부터 권익구제, 그리고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책·제도개선까지. 대한민국을 더욱 투명하게,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곳에 소개한다.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① 청렴선진국에 걸맞은 반부패·청렴 정책 혁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차질 없는 시행
- 부패방지 정책·제도의 재정비로 공공부문 청렴역량 강화
- 공직자의 행위규범 지속 강화로 공직사회 부조리 관행 해소

② 사회 전 부문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확산

- 청렴교육 확대를 통한 공직사회 청렴의식 재정비
- 공기업 등의 청렴윤리경영 확산 지원
- 미래세대 중심의 청렴·공정 정책 확산

③ 부패현안에 대한 신속·공정한 대응

- 부패현안 및 사건에 대한 적극적 대응
- 지자체·공공기관 부패 취약분야 집중 개선
- 공공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법·시스템 보완

④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 강화

- 신고자 보호 및 지원제도 전면 개편
- 先보호-後검토, 신속하고 선제적인 보호장치 확립
- 신고자 비밀보장 강화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

① 국민고충 적극해소로 실질적 권익구제 주력

-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국민고충 해소
- 대규모 집단민원 조정·해결자로서 사회 갈등 해소에 전력
- 전략적 사후관리로 국민이 체감하는 권익구제 실현

② 효율적·전문적 고충민원 처리체계 확립

- 국가·지방 옴부즈만 간 협력 체계 구축
- 전문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로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③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강화

- 적극적 행정심판 제도 운영으로 권익구제 확대
- 신속한 재결로 신뢰받는 행정심판 제도 구현



국민 목소리 기반 정책·제도개선

①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정부 디지털 소통플랫폼 운영

- 국민신문고 관리·운영의 책임성 강화
- 국민생각함을 통한 정책 의견수렴과 참여 활성화
-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예방

② 국민의 소리에 기반한 정책·제도개선 적극 추진

-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통한 정책개선 지원
- 부패방지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③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한번에 편리하게 민원상담·해결

- 국민이 만족하는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 법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①
더 가깝게 들읍시다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

②
더 빠르게 해결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국민권익 고충민원 서비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국민의 목소리가 더 나은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 가깝고, 더 빨라진 고충민원 서비스를 이곳에 담는다.

더 가깝게 더 빠르게 연제나 국민 10분만에 연제나 국민

국민권익에 디지털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년 비전'을 발표했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 개개인의 민원을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고,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대대적인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



국민이 중심되는 범정부
소통플랫폼 운영

국민의 소리에 기반한
정책·제도개선 적극 추진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한번에 민원 상담·해결

메타버스, 인공지능(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 접목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디지털 소통 및 참여 확대를 통해 국민
과 정부가 함께 **국민권익 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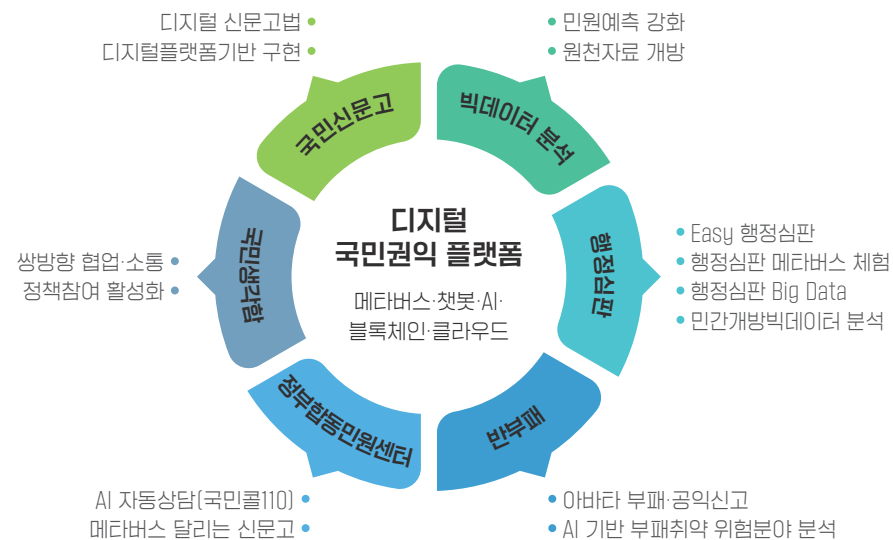
01



2022 디지털 국민권의 플랫폼 비전으로,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디지털 국민권의 플랫폼은 기존 국민참여 플랫폼에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시켜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클라우드로 수천만 개의 민원 빅데이터를 보관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민원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동 제공한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공공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 디지털 국민권의 플랫폼 비전 개념



NEWS

민원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디지털 국민신문고법(가칭)」 제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빅데이터(Big Data)로 저장, 분류해 민원이 더 빠르고 더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는 법안이다. 원스톱 민원처리와 함께 맞춤형 생활정책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디지털 국민권의 플랫폼 이렇게 빨라집니다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대표 소통 창구다. 현재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 민원을 해결하고 소통하고 있다. 또 디지털 기반 국민 정책참여 포털인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제도개선과 민원빅데이터 분석으로 국민 불편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는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다 진일보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불편과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생각와 제안을 적극 수렴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1 #챗봇 시스템 도입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답변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2 #메타버스 기술 적용

국민생각함에 메타버스 기술을 적용해 정책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이 아바타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민패널을 10만 명까지 확보해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한다.

3 #데이터 클라우드 구축

국민제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권익위원회 내·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민생활과 직결된 피해를 사전 예측해 알리는 민원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INFO

디지털 반부패·행정심판

2022 디지털 국민권의 플랫폼 비전은 고충민원본 아니라, 반부패·행정심판 분야까지도 디지털 기반(AI, 메타버스)의 업무혁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AI 기반 부패취약분야 분석]

부패·공익신고 내용, 언론보도 등을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지역별·유형별·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진단

[EASY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시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AI 기반으로 행정처분 유형별 재결례 및 청구서 자동 완성 기능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외국인근로자·주력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행정/문화/교육
공유재산, 재난, 교육전반에 관련된 국민의 목소리



국방/보훈
병무행정, 현역장병 관련 민원



산업/농림/환경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대기 환경 등

02

국민신문고가 변화한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국 각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확대 운영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및 영세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경영활동 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업고충 기동해결' 역시 확대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렇게 가까워 집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확대·신속·정확해진다. 대규모 인명사고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 등으로 긴급한 고충 현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고충상담 및 즉각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전문조사단이 기업현장을 방문해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의 인허가, 금융·세무, 계약 등 관련 고충을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기업고충 기동해결'을 강화한다.

1 #달리는 국민신문고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상담분야는 행정, 안전, 교육, 복지, 산업, 농림, 환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세무, 주택, 건축, 경찰, 국방, 보훈 등 모든 행정분야이며,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2 #기업고충 기동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이 사회적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2017년 12월 기업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고충민원팀을 출범했고 기동해결 특별상담 운영 등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충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진행하는 기동해결 특별상담을 확대하고 기업고충을 해소할 예정이다.

NEWS

더 전문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집단민원조정법」 제정 추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집단민원을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 「집단민원조정법」 제정을 추진한다.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는 개입할 수 없고, 늘 집단민원이 생기고 난 후에 수동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현행 집단민원 조정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객관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자는 취지다.

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더 다듬어야 할 게 있습니다.
단어를 언급하기도 민망스럽지만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청산 아닐까요?
'위선', '특권', '새치기', '부모찬스',
'권력찬스' 같은 단어들이 마스크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이를 막는 길은 함축된 단어로
이해충돌방지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철저한 관리로 공직자의
직무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시
5가지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를
제재합니다.

2022.05.19.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펼쳐서 미리보기 >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시
달라지는 점은?

- 하나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근절
- 둘 채용비리 및 부당 수의계약 근절
- 셋 사적 이해관계 아래 진행되는 업무 근절

더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더 다듬어야 할 게 있습니다.
단어를 언급하기도 민망스럽지만
바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 청산 아닐까요?
'위선', '특권', '새치기', '부모찬스',
'권력찬스' 같은 단어들이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이를 막는 길은 함축된 단어로
이해충돌방지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됩니다.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철저한 관리로
공직자의 직무수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5월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의 제한·금지행위를 포함해 10가지의 행위기준을 규정한 법입니다.



2022.05.19. 시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TIP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 ① 징계·과태료·형사처벌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7년 이하의 징역형,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② 몰수 및 추징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 ③ 부당이득의 환수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해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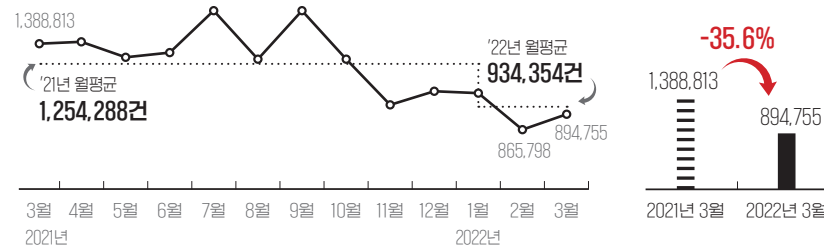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3월 민원동향'을 살펴보고, 국민이 바라는 내일을 그려본다.

■ 민원 추이

- + 2022년 3월 민원 발생량은 총 894,755건
- + 전월 (865,798건) 대비 3.3% 증가
- + 전년 동월 (1,388,813건) 대비 35.6% 감소
-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22.4.1. 11시)



■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40대(31.5%), 성별로는 남성(70.1%)이 다수를 차지, 연령 및 성별은 40대 남성(20.9%), 30대 남성(19.8%) 등의 순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216,915건 대상

연령별	20대이하	11.8%	성별	남성	70.1%	연령별·성별	40대 남성	20.9%
	30대	27.9%		여성	29.9%		30대 남성	19.8%
	40대	31.5%					50대 남성	15.1%
	50대	20.0%					40대 여성	10.6%
	60대이상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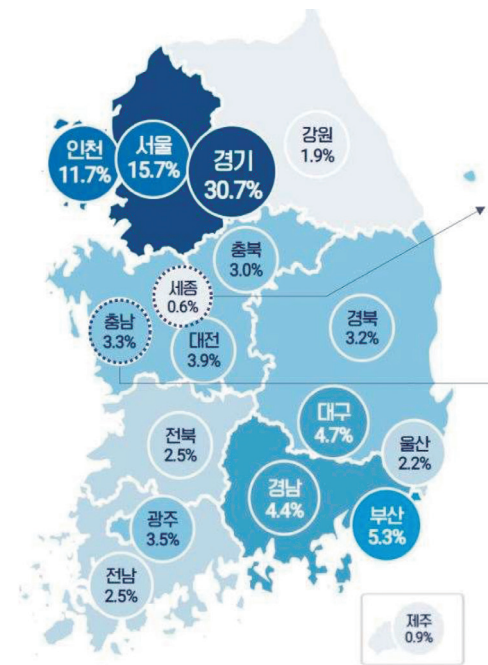
■ 지역별 현황

+ 경기 30.7%(248,522건), 서울 15.7%(127,371건), 인천 11.7%(95,051건), 부산 5.3%(43,000건) 등의 순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58.2% 차지

+ 불법 주정차 및 시설물 파손 신고 등 세종이 전월 대비 가장 많이 증가 [24.8% ↑], 다음으로 초등학교 신설 요청 등 충남이 전월 대비 많이 증가 [21.9% ↑]

※ 신청지역이 확인된 809,209건 대상으로 해당 광역자치단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3월 지역별 민원발생 비율



세종지역 주요 민원 키워드

전기차충전구역
불법광고물
폐기물 학부모 가로등
시설물 파손
입주민 불법 주정차
어린이집 건축물
불법현수막 교육청 사회복무요원
코로나19
자동차관리법

충남지역 주요 민원 키워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두정공원 숲놀이터
활진자
중앙선 침범
자동차 안전기준
시설물 파손
전기차 충전소 마스크 미착용
초등학교 신설
신두정지구 불법광고물
코로나19 교육여건 개선 기부채납부지

■ 분야별 현황

- + 분야별로는 경찰 분야(52.8%)가 가장 많고, 교통(10.3%), 도로(4.7%), 행정안전(3.7%), 환경(3.2%), 주택건축(3.2%), 도시(3.1%) 분야 등의 순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고 등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경찰 분야의 과반수 차지

경찰	교통	도로	행정안전	환경	주택건축	도시	산업통상	보건
52.8%	10.3%	4.7%	3.7%	3.2%	3.2%	3.1%	2.9%	2.0%
교육	노동	문화	국방	방송통신	수자원	사법	과학기술	농림축산
2.0%	1.8%	1.1%	1.1%	1.0%	0.9%	0.9%	0.8%	0.8%
재정	관광	법무	복지	해양수산	체육	세무	우정	외무통일
0.6%	0.6%	0.5%	0.4%	0.4%	0.4%	0.3%	0.3%	0.3%

※ 분야 정보가 확인된 892,591건 대상

증가율 상위 분야



외무통일
45.5% ▲



국방
40.2% ▲



경찰
32.7% ▲



농림축산
29.8% ▲



과학기술
15.8% ▲

감소율 상위 분야



도시
76.7% ▼



교육
27.9% ▼



사법
23.8% ▼



문화
17.1% ▼



복지
12.7% ▼

■ 주요
민원키워드

- + 3월 상위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서울 접근성, 수도권 서북부지역 등
- + 서울 접근성, 광역교통사업,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정차 확정 등 '교통환경 개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1	불법주정차	11	차세대 신개념 환승센터 구축	21	영덕초 증축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	시설물 파손	22	기지이전 부지
3	서울 접근성	13	안전 신고	23	영흥 숲공원
4	수도권 서북부지역	14	노선 거리	24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5	인구 밀집도	15	신도시주민	25	정차 확정
6	광역교통사업	16	어린이 보호구역	26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7	서울 중심	17	소각장 폐쇄	27	정문 후문
8	원당지구 인구	18	사유재산 침해	28	통학 보행로
9	정차역 환승센터	19	불이익소급원칙	29	지역별 노선
10	복합쇼핑몰 계획	20	벌칙규정 강화	30	지역주민 설득

■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영상콘텐츠를 소개합니다!

1분기 민원동향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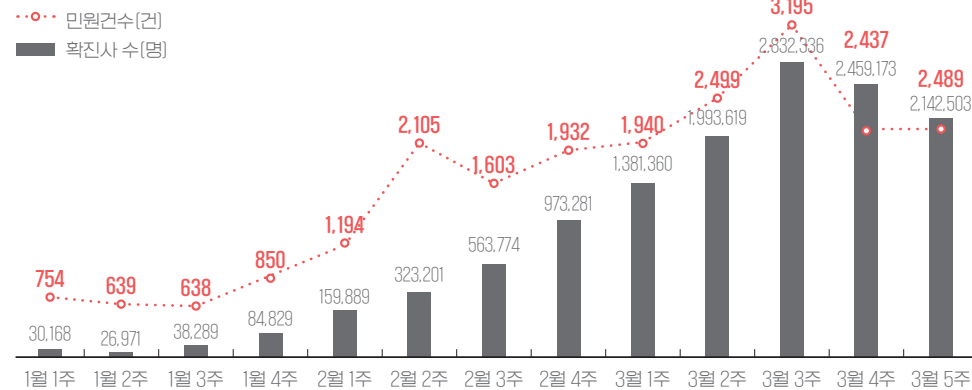
4월의 관심키워드 : 코로나19 재택치료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재택치료자 격리 통지서 발급 요청 등 각종 민원 발생이 예상되어 민원예보 발령

※ 4월 5일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수 1,379,196명 (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1 최근 3개월간 주간 민원 및 확진자 추이

최근 3개월간('22.1월~3월)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민원은
총 22,275건,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이 본격화된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수와 함께 급증



2 신청인·신청지역

신청인은 남성 (54.1%)이 여성 (45.9%)보다 많고, 연령별로 30대 (32.7%), 40대 (30.9%), 20대 (18.8%), 50대 (12.0%), 60대 이상 (4.7%)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1,214건(전체의 50.4%), 연령 정보 확인 가능 10,310건(전체의 46.3%) 대상

신청지역은 경기 (26.9%), 서울 (23.1%), 인천 (7.9%), 부산 (6.5%)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20,467건(전체의 91.9%) 대상,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통계와는 다름

3 처리기관

기관유형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60.4%로 가장 많고, 중앙행정기관 35.1%, 시도교육청 2.0%, 공공기관 1.6% 등의 순

4 민원 사례

[재택치료자 격리 통지서·해제 확인서 발급 요청]

- 코로나19 재택치료 기간 동안 회사에 유급휴가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재택치료 격리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보건소에 연락하여 격리 통지서 발급을 요청 했는데, 다음 날 '3.1. 개정된 방역지침에 따라 격리 통지서는 따로 발급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격리 통지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보건소는 발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2.3월, 서울 종로구)
- 3월 초에 코로나19에 확진되고 현재 격리해제 후 완치된 상태입니다. 4월에 미국으로 출국을 해야 하는데 미국 입국심사 시 코로나 완치자의 경우 회복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격리 해제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2.3월, 충남 공주시)

[재택치료자 생활지원금 신청 문의]

- 제가 2.28.부터 재택치료에 들어갔는데, ① 4인 가구 기준으로 생활지원금이 얼마 지급될지, ② 대략 적으로 언제 지급될지, ③ 주민센터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고 들었는데 제가 거주하는 ○ ○동 주민센터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④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한지, ⑤ 계속해서 지원금액 이 낮아지고 변동이 있는데 확진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되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2.3월, 부산 동래구)
- 2021.11월과 2022.1월 2회에 걸쳐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 등이 없어 접수 가 되었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소수 인원이 지급업무를 하고 있다면 인력을 충원하여 신속하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2월, 전남 여주시)

[비대면 진료 불편사항 개선 요청]

- 가족 모두가 확진되어 비대면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찾으러 올 사람이 없으니 보건소 를 통해 배송해 주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야 약이 배송 되었고, 그 때까지 상비약으로 버텨야 했 습니다. 확진자도 동선만 최소화 한다면 본인이 약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2.2월, 충남 천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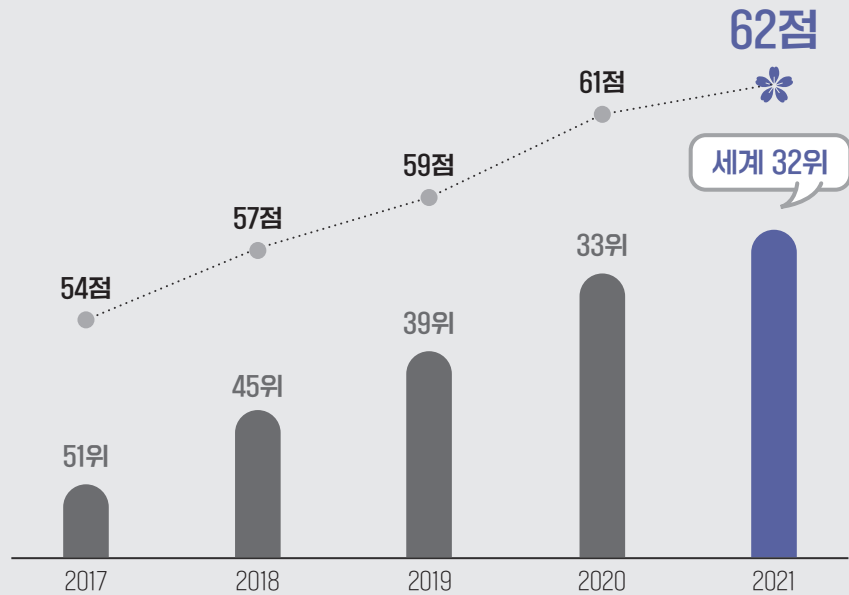
[방역수칙 위반 사례 제보]

- 회사에서 확진된 직원에게 방역수칙보다 회사일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출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확진 직원들이 재택치료 기간 1주일을 채우지 않고 출근을 하고 있어 확진되지 않은 직원들은 불안함에 떨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22.3월, 경기 파주시)

ACRC NEWS

2022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와 정책 이야기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대한민국 세계 32위, 역대 최고 성적



최근 5년 동안 OECD 국가 중 점수(8점)·순위(19단계) 상승 폭 가장 높은 수준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 2017년 51위에서 19단계 상승해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국제 반부패 지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국민권익위-국회사무처, 민원 빅데이터 국회 정책자료로 활용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회사무처는 지난 3월 30일 국회 접견실에서 국회 의정활동 및 정책에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민원 빅데이터 분석사업과 민원 빅데이터 정책 활용·홍보에 관한 사항을 상호협력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난 4년간 접수된 17개 시·도의 민원을 대표 키워드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각화해 국회사무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국민권익위의 민원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의정활동과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하도록 국회에 안내할 예정이다.



부패신고 처리 시, 피신고자 사실확인 제도 시행

개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18일부터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만을 대상으로 감사·수사 등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피신고자는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제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소명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을 통해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맞아 유공기관 및 개인 포상

지난 2월 25일 '제10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1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41점, 위원장 표창 79점을 수여했다. 이번 국민권익의 날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기념식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중계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반부패·공정개혁을 완수해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국민연금공단, 청렴윤리경영 확산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난 4월 15일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국민연금공단은 K-CP의 도입과 청렴윤리경영 문화 정착 및 확산, 부패위험요인에 대한 예방·탐지·개선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중으로 구체적인 K-CP 매뉴얼을 배포해 공공기관과 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청렴윤리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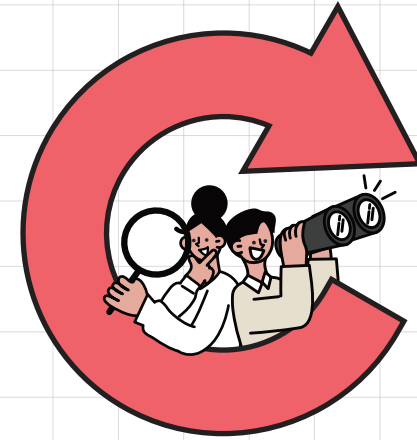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안착 위해 대상기관과 공론의 장 마련

지난 4월 13일, 19일, 20일 총 3차례에 걸쳐 573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올해는 20년간 시행된 청렴도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통합해 전면 개편된 종합청렴도 평가제도가 시행되는 첫해이다. 이번 워크숍은 개편된 평가모형·지표에 대한 이해와 평가 대상기관과의 소통의 장을 본격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청, 광역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이 참석한 워크숍에서는 전현희 위원장이 그간 반부패 정책의 성과, 청렴도 평가의 의미와 개편의 취지, 당부 사항 등을 전달했다.



①
저희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②
전자파 피해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세요!



새로고침

국민의 목소리 권익의 길이 되다

국민의 목소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성심성의껏 답하기 위한
다양한 고충민원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민의 고충민원 사례를 소개하고
부당한 처우의 새로고침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①

고덕강일지구 철거 이주민
전매제한 및 거주임무기간 완화

저희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2016년 당시, 서울시 최고령 아파트였던 정릉 스카이 연립주택이 철거됐다. 철거 이주민들은 서울 고덕강일지구 특별공급입주대상자로 선정돼 단지별(A, B단지) 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일부 단지(B단지)만 가혹한 전매제한 및 거주임무기간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철거 이주민들은 주거 안정과 과도한 차별 방지를 위한 적용 기준일 변경을 요구했다.



○○

저희 철거 이주민들은 특별공급대상자로 같은 날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A단지에 비해 입주자모집공고일이 10개월 늦은 B단지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매제한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협업을 통한 법령개정 권고

철거 이주민 중 일부는 대출이 불가하거나 원리금,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다. SH공사와 협업을 통해 법령 제도·정책 등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낱알이 파헤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단한 노력으로 전매제한 및 거주임무기간 적용기준일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서 고덕강일지구 특별공급 배정일로 할 것을 권고했다. 그 결과, 고덕강일지구 B단지를 특별공급받은 고덕강일 원주민과 정릉 스카이 철거민에게 적용됐던 전매제한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거주임무기간은 5년에서 0~1년으로 재산정됐다.

[고덕강일 B단지 전매제한 및 거주임무기간 산정기준 변경]

당초	2020. 6. 2. 입주자모집 공고일	▶	변경	2019. 6. 18. 특별공급 배정일
----	--------------------------	---	----	--------------------------

[전매제한 및 거주임무기간 재산정]

단지명	전매제한		거주임무	
	당초	변경	당초	변경
B단지	10년	5년	5년	1년 또는 없음 (면적별 상이)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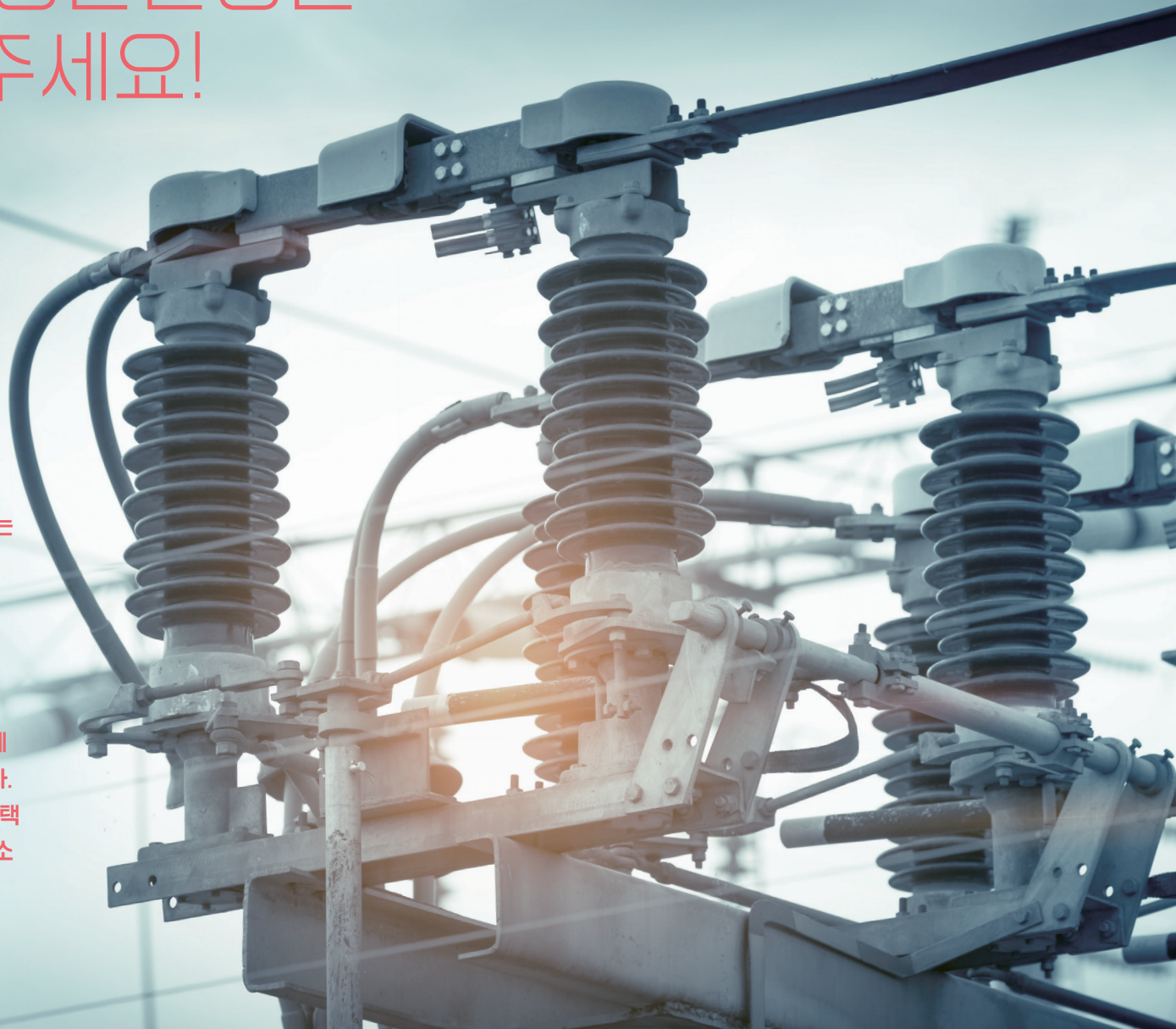
법령개정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정릉 스카이 연립 철거 이주민의 구제책이 마련 됐다. 앞으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법령 제도·정책 등의 개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주택가 인근 고압변전소 건설 반대 집단민원 원만히 해소

전자파 피해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해주세요!

경기도 화성시 산척동 일대는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공동주택 5개 단지
5,217세대가 입주
를 마쳤다. 주민들은 신도시의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
만족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20년 5월 공동주택
단지 한 가운데에 고압변전소
건설 허가가 났고, 전자파
피해에 따른 안전 문제
집단민원이 제기됐다.



○○

변전소는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들어서는 것 아닌가요?
왜 하필, 우리 동네 한 가운데 고압변전소가 건설되는 건가요. 전자파
피해를 예방하고 이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협의점 도출을 통한 집단민원 해소

국민권익위원회는 집단민원 접수 후 고압변전소 건설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기관으로부터 추진 경과와 허가 과정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대규모 인구 유입에 따른 전기 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변전소
건설계획이 신도시 개발계획단계부터 검토된 것인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변전소 건설허가의 적법성을 주민들과 함께 검증했다.

또한, WHO 및 국내외 전자파 피해 연구결과 자료를 토대로 변전소
울타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주민들에게 입증했다.
그 결과, 변전소는 설치하되 주민들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협의점을 도출했고, 한국전력공사와 주민들 모두 이를
수용함으로써 공공시설 건설 반대 집단민원은 원만히 해소됐다.

[WHO 및 국내·외 전자파 피해 연관성에 관한 연구결과]

전자파 검출량

5.6 μ T > 3.8 μ T > 2.9 μ T > **0.3 μ T** > 0.6 μ T
전기오븐 헤어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변전소 울타리 송전선로

※ 국내·외 연구결과 전력설비 전자파와 인체 영향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음

시사점

고압변전소를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건설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만한 진행과 민원 발생을 항구적으로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는 도심에 설치되는 비선호 공공시설 건설의 좋은 선례가 됐다.

국민에게는 신뢰를, 공직자에게는 안심을!

공정한 업무 수행의 바탕을 만들다

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법안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준비TF를 구성했다.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준비TF는 법안 통과에 앞장섰던 부패방지국장과 행동강령과장이 준비단장과 부단장을, 주요 실무를 담당했던 조유지 서기관이 TF팀장을 맡았다. 더불어 한세근 사무관, 김희리 사무관, 조수연 사무관, 권나라 주무관이 모였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

2022년 5월 19일, 이해충돌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2021년 4월 30일 구성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원활하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다. 시행령을 제정하는 한편,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만들었다. 더불어 해당 법안이 널리 알려지도록 교육과 홍보 역시 담당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의 청렴한 직무 수행을 위한 준비

청렴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올라가고 있다. 과거에 관행으로 여겼던 부분이 이제는 부패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공직자의 사익과 청렴한 직무수행이라는 공익 사이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강해졌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2021년초, 대규모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직무수행을 통해 사익을 추구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비로소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미 2018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해 공무원 조직에서는 이해충돌과 관련한 부분이 관리·통제되고 있었으나, 이해충돌 방지법이 법제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길이 열렸다.

“일당백인 팀원들이 모였기에 한정된 시간 안에 시행령 제정과 기관별 표준화 지침을 만들고, 업무편람을 각 기관에 배포하는 등 제도운영을 위한 준비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조유지 팀장이 TF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TF에 주어진 시간은 국회 본회의 의결부터 본격 시행까지 1년여. 구성원들은 지난해까지 시행령 제정을 마쳤고, 현재는 전국 14,9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목표로 했던 시행령 연내 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많은 기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어 보람을 느낍니다.



관행은 없애고 신뢰는 회복하고

한 가지 조항에도 관련 업무를 하는 기관이 여럿이었기에,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각 조항에 대한 기관들의 이견을 조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끌어내며 관련 제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많은 시간을 쏟아야 했다. 한편으로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의 내용을 공직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데 주력했다. 법의 주요 골자를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로 크게 정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2021년에는 363개 기관에 직접 교육을 했으며, 1,3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마쳤다. 2022년에도 2,1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를 비롯해 직접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법안의 핵심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본격 시행을 앞두고 스퍼트를 내는 TF의 바람은 다음과 같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원활하게 시행되는 것. 이를 통해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 이 모든 움직임이 청렴문화 확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TF 구성원들은 해산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〇〇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하는 제도가 어떻게 하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청렴 정책을 주관하는 '반부패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그 명성에 맞게 대한민국 청렴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손을 보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김희리 사무관



MINI
Interview

〇〇

권나라 주무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루는 법안은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대상자는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모든 공직자입니다. 공직자들이 법 내용을 잘 익혀 법이 시행되었을 때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법의 내용을 더 쉽게 풀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생각함 활용 국민의견 조사

국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

누구나 자유롭게 행정과 제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대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 '국민생각함'. 생활이 개선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그 의견이 정책으로 만들어진다. 이번호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렴한 국민 목소리를 녹여낸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소개한다.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국민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 사유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불편을 호소했지만, 그간 체감할 수 있는 개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 불법 주정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건수 증가 : 2016년 100만 건 → 2020년 314만 건
-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민원 : 지난 4년간 7만 6천여 건
-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법 개정 요구 : 지난 4년간 108건

국민생각함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해법과 정책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사유지 불법주차, 국민 피해경험사례 설문조사 결과
기간 : 2021.10.15. ~ 2021.10.29. / 응답률(%)

피해경험

있다 98.5%

발생장소

31.1%
아파트

25.5%
다세대·연립주택

23.4%
노면표지 없는 골목길

불법주차 사유

59.0%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차 발생유형

24.3%
이중주차·출차방해 행위

다양한 개선의견 : 벌금 부과 및 견인, 공권력 개입, 개인차고지와 차량등록제 시행, 거주지 인근 공용주차장 확대, 사유지 유희 및 여유 공간 활용

사유지 주차갈등 해법 결정, 국민참여 설문조사 결과
기간 : 2022.01.18. ~ 2022.02.03. / 찬성률(%)

98.0% 아파트, 연립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행정력 집행근거 필요

93.5% 상가건물 입구 등 대지안 공지, 전면공지, 공개공지 내 불법주차 단속 필요

91.5% 노면표지 없는 이면도로, 골목길의 불법주차 불법적치를 단속근거 필요

이외에도 주차난 해소대책을 위한 주차 공간 마련 방안 및 주차단속 인력부족난 해소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개선내용



- ①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상가입구 등의 경우 교통방해 행정조치 근거를 신설해 「공동주택 관리법」과 「집합건물법」에 주차질서 준수사항과 자율규제 근거를 규정하고, 「주차장법」에는 상습적·고의적인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조치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② 상가입구 건축물 후퇴선 등 대지 내 공지의 경우 사유지이긴 하나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된 공적공간임에도 불법주차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불법주차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근거를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③ 도심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주차 단속이 가능하도록 「건축법」상 도로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2023년 2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 ④ 수도권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방안

도심지역의 모든 공동주택 법정주차대수를 세대당(또는 호실당) 1대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하고, 주거전용면적 외 선택사항으로 주차전용면적도 별도 분양이 가능하게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 외에도 주차공유제, 주차장 사업, 차고지증명제 등을 검토 및 근거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언제나 국민의 가까이에서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실현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가 부양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처분 행정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했음에도 선순위 유족 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건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사례를 소개한다.



수박이 너무 달아서

때론 옳다고 믿고 있던 것이
무너져내리는 법이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빨갭게 익은 수박 한입, 그 속에 청림의
메시지가 깊이 스며 있다.

WRITE

정민영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필 분야 최우수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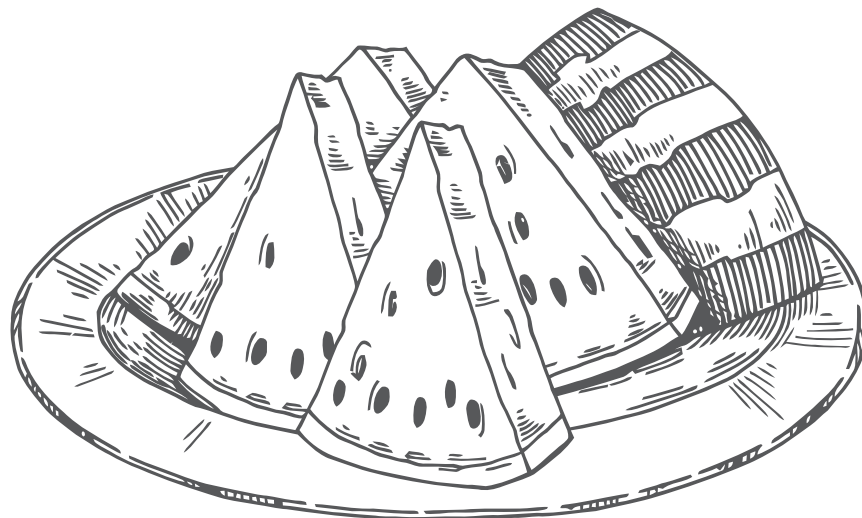
갑자기 웬 수박이냐고 물어보는 동생에게
나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시장에 있는 야채가게 갔다 왔거든.

야, 근데 난 살면서 내가 제일....

여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하고 수박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수박이 너무 달아서 또 눈물이 났다.

♀♀



칠월의 여름, 나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시장의 좁은 골목에서 머리 위로 내리쬐는
햇볕을 정통으로 맞으며 야채가게
여주인에게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땀이 코와 볼에 맺히고 목에는
머리카락이 들러붙었으며 등에 난 땀으로
윗옷의 색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허벅지가 달라붙는 숨 막히는 여름의
땀별 더위였지만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다. 가게 주인의 지폐 바꿔치기에
당해 돈 오만 원을 순식간에 빼앗겼기
때문이다. 머릿속으로는 오늘 이 가게에
온 것을 이미 여러 번 후회하고 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삼십 분 전, 나는 분명 지갑에서 오만
원짜리 지폐를 빼서 오른쪽 골목에서 가게
쪽으로 걸어왔다. 가게 주인은 가게 밖에
서 있다가 돈을 먼저 받아 허리에 차고
있던 까만색 전대 속에 넣었다.
나는 오만 원을 내고 평소대로 사브사브용
야채 몇천 원어치만 사고 잔돈을 거슬러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야채를 다
고르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자 대뜸 가게
주인이 자신은 오천 원을 받았다고 했다.
내가 아침에 계획해서 넣은 오만 원을
빼낸 지갑은 비어있는데 말이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지.
우연히 한 번 야채를 구입한 뒤에는 꼭
여기에서만 샀었다. 야채가 정말 싱싱하고
양도 많았기 때문이다.

상추 이천 원어치를 사면 짝 찬 검은색
비닐봉지가 두 봉지였다. 동생도 일부러
이쪽으로 심부름을 보냈었고 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다녀갔기 때문에
단골이라고 생각했는데, 가게 주인의
뽕뽕함에 당황스러워서 대응방법이
조금도 생각나지 않았다. 자기가 장사를
몇 년이나 했는지 아냐면서 자기는 받은

돈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했다.

저도 기억력 좋아요. 분명히 오만 원
냈어요. 내가 어느 쪽에서 가게로 왔고
어떻게 돈을 냈는지, 가게 주인이 전대에
돈을 넣은 모습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도
내가 언제 그랬냐며 아니라고 한다.

제가 진짜 냈다니가요.

내 말을 툭겨내기라도 하듯 손을 허공에
두어 번 젖는다. 이 와중에 좁은 가게에는
손님들이 들어왔고 나는 입구에서 조금
자리를 옮겨 섰다. 가게 주인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야채를 팔았다.

야채를 다 고르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하자

대뜸 가게 주인이 자신은 오천 원을 받았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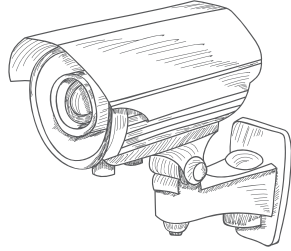
내가 아침에 계획해서 넣은 오만 원을 빼낸 지갑은
비어있는데 말이다.

CCTV를 보자고 하니 어이없게도 없다고
했다. 주변을 보니 골목이 좁아서 가게
입구가 찍힌 CCTV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반대편에 있는 정육점으로 들어가
사정을 설명했다. 마침 정육점에는 컬러
CCTV가 3대나 있었고 녹화범위 안에
야채가게가 있었다. 사장님은 더운데
고생한다며 물을 주셨고 정육점 사장님
부부와 나는 CCTV를 돌려보았다.



잠시 후 화면 속에는 약 한 시간 전의 찰떡궁합에 젖지 않은 내가 등장했다. 그래 내 기억이 맞았다. 나는 가게에 오자마자 지갑을 열어 가게 주인에게 지폐를 건네주려고 했다. 이제 지폐의 색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장난인지, 야채가게에서 쳐놓은 천막의 귀퉁이에 정확하게 내 손이 가려져 지폐가 보이지 않았다. 아...! 하는 탄식이 동시에 나왔다. 정말 조금만 옆으로, 조금만 앞으로 나와 있었더라면. 내 표정을 본 정육점 사장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며 경찰이 와도 못 찾는다고 하셨다.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는 손바릇이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며 종종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웬만하면 카드가 되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너무 허탈했다. 나는 쓰러지고 싶은 무력감을 이기며 정육점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야채가게로 갔다.

다시 온 나를 야채가게 여주인은 본체만체 결눈질로 볼 뿐이었다.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그냥 마트로 갈 걸 여기 야채가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괜히 시장으로 와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 사람들도 참 멍청하다. 이렇게 해서 손님을 잃으면 알 낳는 거위를 갈라버린 꿀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는가. 별생각이 다 들었다. 지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던 그때,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야채가게 주인의 남편이 자전거를 세웠다. 헬멧도 벗지 않고 나에게 말을 한다. 그냥 좀 봐주면 안 되겠냐고. 아내가 시장 일을 많이 하다 보니 나이도 먹고 요즘은 깜빡깜빡한다고. 그래도 평생 남의 돈 욕심 낼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난다고 하면 나중이라도 꼭 돌려주겠다고. 젊은 사람이 이해해 달라고. 야채가게 여주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픈 사람처럼 앉아있다. 듣자 하니 성질이 더 난다.



지금까지 야채가게에서 덤으로 얻은 것을

다 합해도 오만 원이 안 될 것 같았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얼굴의 땀을 손바닥으로

쓴내렸다.

아니 기억이 안 나는 것이 무슨 자랑이예요? 아저씨,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그거랑 제 돈이랑 무슨 상관인데요. 저는 받아야 한다니깐요. 소용이 없다. 이제 아픈 사람은 내가 될 판이다. 얼굴은 이미 땀과 눈물범벅이 되었다. 그래 그만하자. 어느덧 머리 위의 해는 옆으로 비껴있다. 나는 지갑에서 공무원증을 꺼내어서 가게주인에게 보여주었다. 이거 보세요. 저 공무원이에요. 저 기억력도 좋고 진짜 거짓말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 야채가 좋아서 일부러 여기 다니는데 앞으로도 여기서 살 거예요. 돈은 돌려받았다고 생각할게요.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의 선전포고 같은 것이었다. 내가 나은 사람이어서 용서해주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말했다.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의 질은 인정하고 다시 가게를 찾겠다고 말하는 내 모습을 보고 가게 주인도 양심에 조금의 가책은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가게를 나와서 내가 왔던 골목으로 걸어갔다. 집으로 오는 길 내내 머리가 어지러웠다. 햇빛 아래 오래 서 있었던 것도 지치고, 지금 시대에도 우기면 다 된다는

식으로 욕심부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까지 어지러웠다. 오만 원은 나에게 정말 큰돈이었기 때문에 속이 탔다. 지금까지 야채가게에서 덤으로 얻은 것을 다 합해도 오만 원이 안 될 것 같았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얼굴의 땀을 손바닥으로 쓴내렸다. 휴지를 찾기 위해 가방에 손을 쑥 넣은 순간. 부정하고 싶은 감촉이 느껴졌다. 돈이었다. 내 지갑 모양대로 접힌 오만 원이었다.

이제야 물밑 듯이 생각이 차올랐다. 나는 골목에 들어오며 잔돈을 받을 생각에 오만 원짜리 지폐를 빼놓았다가 골목 중간에서는 급한 일이 아니니 다음 주에 천천히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야채가게에서 딱 떨어지는 오천 원을 낸 것이다. 청경채 이천 원, 알배추 이천 원, 버섯 천 원. 총 오천 원. 나는 골목을 나오면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아파트 계단에 앉아 엄마께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말씀드리니 늦기 전에 얼른 가서 사과드리라고 하셨다.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온 김에 더 가져가라고 이것저것 가방에

넣어주셨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부끄럽고 죄송해서 입술을 세게 물었다.



그러나 정말 도저히 갈 수가 없었다. 이번에는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막 웃던 친구도 가서 사과해야지 어쩌겠냐고 했다. 나는 아파트를 나와 길 건너 약국에 들러 비타민 음료를 한 상자를 샀다. 가게에 도착하니 저녁을 드시고 계시는 주인 부부가 계셨다. 부채질을 연신 하시면서 반찬 두서너 가지에 밥을 드시고 계셨다. 내가 다시 온 것을 보고 멈칫하셨고 나는 가게 앞에 서서 울먹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저한테 오만 원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가게 주인 부부는 밥을 드시다 말고 나오셔서 오기 어려웠을 텐데 고맙다고 웃으셨다. 내가 내미는 비타민 음료를 보시고는 뭇 이런 걸 다 사왔냐고 괜찮다고, 다시 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다. 그러면서 주말마다 사브사브용 야채 사러 온 거 안다고, 온 김에 더 가져가라고 이것저것 가방에 넣어주셨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부끄럽고 죄송해서 입술을 세게 물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 손에는 그물에 담긴 작은 수박도 하나 들려있었다. 가져가서 동생이랑 먹으라고, 그리고 꼭 또 오라고 하셨다. 야채가게에서 인사를 마친 나는 이 이야기의 진짜 마무리를 하기 위해 정육점으로 갔다. 정육점 사장님께 오만 원은 나한테 있었다고 말씀드렸다. 정육점 사장님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다.

집으로 가서 씻고 나와 동생이랑 수박을 갈라보니 아주 새빨갭게 잘 익은 수박이었다. 갑자기 웬 수박이냐고 물어보는 동생에게 나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시장에 있는 야채가게 갔다 왔거든. 야, 근데 난 살면서 내가 제일... 여기까지밖에 말하지 못하고 수박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수박이 너무 달아서 또 눈물이 났다.

열차가 굽이치는 협곡을 가로지른다. 낙동강의 여울이 무리지어 뒤를 따르고
 빛은 자리를 옮겨 다니며 인적 없는 산세를 환하게 밝힌다. 채비 없이 마주한 봉화의 시간은
 깊은 자연의 표상처럼 여행자의 동경과 맞닿아 있었다. 이곳에 새겨진 자연의 시간과 굴절의
 흔적을 언제까지나 기억하고 싶다. 봉화라는 이름에 수없이 덧그어서 굽어진 짧은 밀줄처럼.

글 김성호 사진 최준근

권의 나들이

첫번째 나들이

걷다
보니

여행
이었다



봉화로 향하는 길은 짙은 자연을
복사해 놓은 것처럼 한결갈고 빼곡하다.
마치 산과 하늘의 이음새를
헤집고 달리는 기분이다.
래백산과 소백산의 물줄기가 곡류하는
낙동강의 물길에 눈에 들어올 때쯤,
깊은 산골에 덩그러니 자리한 양원역을 만난다.

양원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자 역사다.
기차역이 없어 철길을 따라 먼 길을
오가야 했던 주민들은 탄원서를 제출했고
결국 1988년 힘을 합쳐 양원역이라는
작은 간이역을 만들었다.
이러한 양원역의 일화는 영화 「기적」의
모티브가 되며 다시금 조명 받았다.

양원역

철길을 건너 두 평 남짓한 양원역에 들어서면
너른 창문과 긴 나무의자, 여행객을 위한 난로가
나란하다. 비틀거나 채색되지 않은 모든 것은
과거의 시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하루, 몇 차례 지나치는 철로 위 열차 소리만이
양원역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유일한 문명의
소음이다. 이 역시도 금세 물소리에 묻혀
바람처럼 사라진다.

양원역은 외딴 섬을 지키는 작은 등대처럼
넓은 산속을 희미하게 비추며
여행객의 고단함을 위로한다. 굵어진 철로는
어디엔가 도달하지만 양원역은 언제나
이곳에 남아 적막의 공백을 메울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오묘한 빛깔이 산하에
가득하고 철로는 흐릿하게 수평선과 맞닿는다.



주소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13-2
문의 1544-7788



낙동강세평하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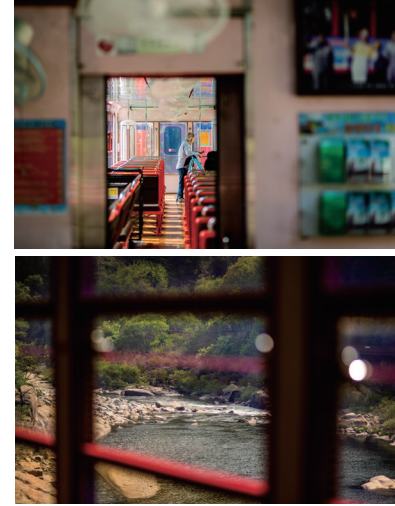
양원역에서 승부역까지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걷는다. 낙동강세평하늘길이라
불리는 이 길은 약 5.6km의 비경구간을
품은 트레킹코스다. 과거 승부역 역장이 쓴
'승부역은 하늘도 세평, 꽃밭도 세평이나
영동의 심장이요 수송의 동맥이다.'라는
짧은 시구를 인용해 코스 이름을
낙동강세평하늘길로 지었다고 한다.
승부역에서 하늘을 올라다보자
깊은 골짜기에 둘러져 세평만 보일 듯 한
모습이다. 길은 서로 다른 바위에 부딪쳐
다른 지점에서 구부러지는 낙동강의 물길을
닮았다. 역겹의 세월동안 낙동강 물길이

깎아낸 풍경에는 시간의 방향과 굴절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있다. 반들반들
윤이 나는 거대한 암벽들과 비취색
청류가 휘감아 도는 아름다운 소는
낙동강세평하늘길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자연의 소중한 선물이다. 자연이 만든 길,
그 흔적을 따라 걷다 보면 도시와의 거리는
차츰 벌어진다. 걸으면 걸을수록 일각
일각 세계 밖으로 밀려 나는 기분이다.
기계 문명 속에 아직도 한 군데 남아 있는
푸름과 자유의 여지가 있는 지대. 말 그대로
걷다보니 여행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낙동강세평하늘길이다.



V-Train

걷기만 해도 더 없이 좋은 길이지만 백두대간협곡열차 V-Train을 타고 기차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봉화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묘미다.
 옛 무궁화호 고속소화물차를 개조해 만든 협곡열차는 좌우 통유리를 설치해 여행자들에게 더욱 풍성한 자연을 선사한다. 분천역에서 시작해 철암역까지 이어지는 약 1시간가량의 코스이며, 각 역마다 정차시간을 1~10분가량 제공해 간단한 관람도 가능하다.



달리는 협곡열차 창으로 비치는 영동선의 산세와 경치는 이색적이다. 비탈지고 굽이진 철로를 따라 이어진 비경은 점차 멀어지며 꺾적처럼 잔상을 남기고, 걸으며 보지 못한 끊어진 길 사이사이의 공백까지 짙은 푸른빛으로 환하게 채워준다. 협곡열차는 수차례 터널을 통과하는데, 빛과 어둠이 반복되는 구간에 들어설 때면 마치 불규칙한 점선의 행간에 놓인 것 같은 기분이다.

V-Train 운임요금 및 구입방법



운임요금 분천역~철암역 : 8,400원
 영주역~철암역 : 11,700원
구입처 일반승차권과 동일
 (홈페이지, 코레일톡, 자동발매기, 역창구)
 ※ 월, 화요일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협곡열차는 승부역을 지나 마지막 종착지인 철암역을 향해간다. 창문 밖의 비경을 놓치고 싶지 않아 분주하게 애쓰던 카메라를 잠시 내려놓는다. 하루에 담지 못할 자연의 것을 실감하고 훗날을 기약한다. 그리고 조용히 써내려간다. 봉화라는 이름을, 그리고 기억한다. 봉화라는 이름에 덧그어진 붉은 밀줄을.

#첫 번째 상품 국민콜110

‘국민콜 110’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정부민원안내 상담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관련 **상담과 안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제공)**하고 있는 콜센터로, 2007년부터 운영 중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110번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2019년 10월 7일부터 통화요금이 무료로 전환됐습니다.

전화상담 국번없이 110번
(해외 : 82-2-6196-9110)

문자상담 문자메세지 작성 후 '110'으로 문자전송

채팅상담 110 홈페이지 → 상담안내 → 채팅상담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center)



관련영상보기

LIVE

지구 최강 정책을 판매합니다

국민권의 다함께 누리쇼

공무원이 만들면 다 노잼이다?
심지어는 출연자가 장관이라고!
국민의 든든한 친구
국민권익위원회가 드리는 국민을 위한
지구 최강 정책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상품

달리는 국민신문고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민원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도서·벽지,
외국인근로자·주택복지
사각지대 등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발 빠른 행정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아요!



고민 해결!!

#세 번째 상품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재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적극행정의 경우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더 킹

감독 한재림

출연 조인성, 정우성, 배성우 등
장르 범죄, 드라마
줄거리 평범한 검사였던 주인공 '박태수'는 무소불위 권력을 쥐고 품 나게 살고자 한다. 우여곡절 끝에 대한민국을 입맛대로 움직이던 권력의 설계자 '한강식'을 만나 청렴과 정의 따윈 내다 버리고 승승장구하게 된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위기로 몰락하게 된 그는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청렴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

Point 다시 청렴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정직한 후보

감독 장유정

출연 라미란, 김무열, 나문희 등
장르 코미디
줄거리 주인공 '주상숙'은 당선을 위해선 거짓말과 뇌물 등을 일삼는 부패한 정치인이다. 어느 날 벼락을 맞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못하는 진실의 입을 갖게 된다. 스스로 그동안 했던 거짓말을 밝히면서 그녀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린다.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수많은 잘못을 반성하고 청렴한 정치인으로 거듭난다.

Point 청렴한 공직자의 역할

부정부패를 막는 청렴한 발

청렴을 향해 쏘라

부패한 사회를 적나라하게 꼬집는 영화들. 현실과 비슷한 이야기에 씁쓸하다가 주인공의 통쾌한 활약으로 즐거워진다. 부정부패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청렴으로 나아가는 영화 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꿈꾸는 청렴한 사회를 느껴보자.



미스 슬로운

감독 존 매든

출연 제시카 차스테인, 마크 스트롱 등
장르 스릴러, 드라마
줄거리 주인공 '슬로운'은 승률 100%를 자랑하는 최고의 로비스트다. 총기 규제 법안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그녀는 모두를 좌절시킨 거대 권력을 상대로 싸움에 뛰어든다. 총기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심신미약자도 총기를 쉽게 소지할 수 있어 총기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과 신념으로 그녀는 뛰어난 전력을 펼친다.

Point 권력에 맞선 영리한 전쟁



체인질링

감독 클린트 이스트우드

출연 안젤리나 졸리, 존 말코비치 등
장르 드라마, 범죄, 미스터리
줄거리 회사에서 돌아온 싱글맘 '크리스틴'은 아들 '월터'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고 경찰에 신고한다. 다섯 달 뒤 경찰의 연락을 받았지만, 아이는 그녀의 아들이 아니었다. 사건을 해결해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는 경찰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고, 아들을 찾으려는 그녀는 홀로 부패한 경찰과 세상에 맞서기 시작한다.

Point 부패와 비리에 맞서 싸우는 용기

메타가 내놓은 '오кул러스 퀘스트'
VR(가상현실) 기기를 경험해 본 적 있다.
VR 기기를 쓰는 순간 내 앞의 현실은 완벽하게 차단되고,
새로운 가상의 세계로 접속한다.
VR 기기를 벗어던지면, 언제든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상세계에서의 나는 현실과
완벽하게 동일한 느낌을 받지는 못한다.
하지만 새로운 세계의 콘텐츠를
적당히 즐길 정도는 된다.
당신이 VR 기기를 쓰고 경험하는
가상세계에 대한 감각,
그 자체로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글 홍성용 매일경제 기자, <메타버스3.0> 저자

아직 메타버스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새로운 가상의 세계, 메타버스

나를 대신한 가상의 아바타를 이용해
게임을 즐기고, 소통하는 것도
곧 메타버스다. 미국서 출시된
메타버스 게임 '로블록스'와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제트의 '제페로'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로블록스에서는 내가 원하는
레고 모습의 아바타를 만들고 나서,
수천만 개에 달하는 임의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제페로에서는
나의 셀카를 찍어 만든
나의 아바타들이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방탄소년단'의 팬사인회에서 연예인
아바타를 만나 사인을 받을 수도 있다.

더 쉽게 이해해보자.

요즘 초등학생들은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화면을 꾸미는 데
온 힘을 다한다. 프로필 배경화면에
나의 성격을 드러내는 MBTI 결과를
넣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설정해
두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진을
배치한다. 왕년의 SNS 싸이월드에서
미니홈피 스킨을 꾸미고, 배경음악을
삽입하는 것과 똑같다. 가상의 공간을
나만의 특징으로 꾸미는 일이 바로
메타버스다.

아직 메타버스 시대는 무르익지 않았다

성공적인 메타버스를 위해서는 클라우드,
5세대 이동통신, 보안 등 수많은 기술적인
진보가 뒤따라야 한다.
가상의 세계와 현실을 똑같이 느끼려면
여전히 기술력이 부족하다.
전 세계에서 매일 4,800만 명이
로블록스 게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보기술(IT) 인프라가 필요하다.
가상세계에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동시에
상호소통하기 위해 연결에 끊김이
있어서는 안 되고, 나의 데이터가
완벽하게 저장되어야 하고, 결제와
환전 등 가상경제가 안전하게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현재 메타버스는 과도기적
성격을 띤다. 과도기를 벗어나게 하는 것은
전 세계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력일 것이다.
전 세계 35억 명의 유저를 보유한 메타는
지난해만 12조 원의 손실을 내면서도
메타버스 사업을 키우고 있다.
메타는 이미 메타버스 미래의 한 축인
VR시장을 손에 쥐고 있다.
메타의 VR 기기인 '오кул러스 퀘스트2'는
2020년 4분기에 출시된 이후,
출시 1년만에 1천만 대가 팔렸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는 순간

진정한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의 스마트폰을
대신한 새로운 기기가 나오느냐 일 것이다.
사람들의 일상에 파고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물건'이다. 애플의 아이폰과 삼성의 갤럭시폰이
우리의 일상을 장악하고 나서야 모바일의
시대가 펼쳐진 것과 같다.
2022년 하반기에 공개될 애플의 AR글라스가
시작이 될 수 있다. 애플에게는 어떤 기기를
내놓든 무조건 구매하는 충성고객이
20억 명이 넘게 있다. 애플의 AR글라스가
아이폰과 연동되며 전 세계인의 흥미를
자극하면 메타버스 시대가 성큼 다가올지
모른다. 애플에 대항하기 위해 메타가 자신의
VR 기기 가격을 현재의 30만 원 선에서
10만 원 대까지 낮춘다는 관측도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만큼 메타버스 기기를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무르익고 있을 것이다.
아직 메타버스는 시작하지도 않았다.



흐릿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봄철 미세먼지 대응 요령

푸르고 맑아야 할 봄날에, 창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희뿌연 공기는 몸과 마음을 까맣게 물들인다. 이제는 재난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먼지 입자가 체내에 들어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미세먼지의 생활 속 대응 요령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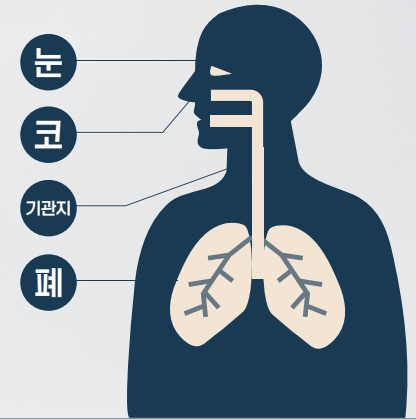
미세먼지란?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μ m(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뜻한다. 주로 석탄·석유 등의 화석연료를 태울 때나 공장·자동차 등의 배출가스로부터 발생한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 우리 몸 깊숙이 들어오기 쉬워 각종 질환을 유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질환

-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
- 알레르기성 비염
- 기관지염, 천식
- 폐기종



생활 속 미세먼지 대응법

1 마스크 착용하기

미세먼지가 심할 땐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 외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2 청결 유지하기

외출에서 돌아온 후엔 습관적으로 손과 몸을 씻어 보이지 않는 먼지를 흘려보내야 한다. 특히 음식을 먹기 전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좋다.

3 해독에 좋은 음식 먹기

물, 과일, 채소 등을 충분히 섭취한다면 미세먼지를 몸에서 배출할 수 있다. 특히 미나리, 배, 마늘, 녹차는 대표적인 해독 음식으로 미세먼지 배출에 도움이 된다.

+ Tip. 미세먼지 해독에 좋은 음식

- 미나리**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미나리는 대표적인 해독음식이다. 체내 중금속을 몸 밖으로 배출해 혈액을 정화시켜준다.
- 배**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배. 목 염증을 완화해 주며, 발암을 배출하는 효능이 있어 미세먼지가 심할 때 챙겨 먹으면 좋다.
- 마늘** 마늘을 많이 먹으면 항산화 작용을 한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은 미세먼지로 인해 체내에 쌓인 중금속 등의 각종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녹차** 녹차의 탄닌과 카테킨 성분은 중금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준다. 다만 탄닌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에 임산부는 음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vol 72	권익 갈무리 다시 읽는 권익 국민 결 국민권익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공공부문 역시 디지털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2022년 비전'을 발표했다. 클라우드로 수천만 개의 민원 빅데이터를 보관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이다. p 9-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를 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법이 5월에 시행된다. p.14-17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은 누구나 자유롭게 행정과 제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확장시키는 대국민 참여 온라인 플랫폼이다. 이번호에서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았다. p 36 	달리는 국민신문고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와 협업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서비스다. p 13 	권익비전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운영 중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다. p 50-51  고충민원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시작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p 27-31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월 19일 시행됩니다.



공무원증

청 백 이

국민권익위원회

저는 대한민국의 '청렴한 공직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 사실을 스스로 신고·회피하도록 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신고·제출 의무

-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 ① 직무관련 외부활동 제한
- ② 가족 채용 제한
- ③ 수의계약 체결 제한
- ④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⑤ 직무상 비밀,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풀 칠 하는 곳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연락처

--	--	--	--	--



받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 담당자 앞

국민권익

2022 SPRING Vol.72

3	0	1	0	2
---	---	---	---	---

SPRING

ACRC NEWSLETTER 2022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vol.72



연락처 :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국민권익>
더 나은 <국민권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작은 목소리도 더 크게, 더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1.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2. <국민권익>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국민권익>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2022년 봄호

권익위 열독왕 QUIZ 정답 : 공직자의



<국민권익>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게시판 : 뉴스·소식 → 홍보자료 → 국민권익소식지